

## 페미니즘 인공지능: 오해와 편견의 컴퓨터 역사 뒤집기

[7장] 놀라울 정도로 편의적인 기계학습

▶ 기계 학습이란?

▶ 기계 학습의 세 가지 유형 (p.162-163)

▶ 훈련 데이터 (p.164)

▶ 기계 학습 알고리즘 (p.164)

▶ 타이타닉 호 침몰사고에서 누가 살아남았을까?

▶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활용한다면? (p.180)

→ 모든 데이터는 지저분하다dirty (p.182)

- 결정트리my\_tree\_one를 사용하여 생존 예측 모델 설계하기

▶ 기계 학습의 함정

가격차별'

타이타닉 호 사고에 대한 기계 학습의 맹점 (p.203-206)

데이터의 놀라운 효율성unreasonable effectiveness of data (p.206-208)

## [8장] 자율주행 자동차로 누구를 구할 것인가

▶ 운전자의 판단 vs 컴퓨터 연산의 차이 (p.223-224)

▶ 지각을 프로그램 할 수 있는가? (p.225-227)

▶ 국제 자동차기술자협회SAE에서 채택한 <자율주행의 수준> (p.234)

SAE 수준 0

SAE 수준 1

SAE 수준 2

SAE 수준 3

SAE 수준 4

SAE 수준 5

▶ 자율주행은 ‘안전하다’라는 역설 (p.238-242)

▶ 자율주행 자동차와 기계 윤리: 트롤리 딜레마 (p.253-255)

→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살인은 '기능'이지,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다.

▶ 자율주행에 관한 컴퓨터 윤리 또는 엔지니어링 윤리의 필요성 (p.255-256)

## [9장] 오해와 편견에 가득 찬 알고리즘

▶ '측정'에 미친 사회(p.263-265)

▶ 저널리즘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(p.268-26)

▶ 기술 지상주의자들의 특이한 세계관 (p.273-275)

▶ 프로그래머들의 무의식적인 편견 (p.277-278)



## [10장] 똑딱 만들어지는 혁신은 없다

▶ ‘스타트업 버스’ : 길 위의 해커톤 destination hackathons : 여행하면서 진행되는 해커톤 (p.290-291)

▶ 데이터 밀도 data density (에드워드 터프트)

▶ 해커톤이 준 깨달음

## [11장] 인간 중심 설계, 휴먼 인 더 루프 시스템

▶ 휴먼 인 더 루프 시스템human-in-the-loop-system : 인간을 포함해 구성하는 시스템 (p.310)

▶ 베일리웍Bailiwick 엔진 (p.313-323)

### 와치리스트

도널드 트럼프 (공화당) →

버니 샌더스(민주당) →

힐러리 클린턴(민주당) →

